

美·日 통화정책회의의 금리결정 '주시'

한은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금리 인상·동결 예상 반반... "인상시 우리경제 영향 제한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와 일본은행(BOJ)이 20일부터 이틀간 각각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우리 통화당국도 이들의 회의의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추석연휴였던 지난 18일에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

이 총재는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결정 회의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의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은과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9월보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더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9월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실적을 내놓고 있어 이번에 금리인상 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또 0.25%p 수준의 인상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연준이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본 유출이다.

이 경우 우리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프라이브 바이 블랙베리' 국내 출시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프라이브 바이 블랙베리(PRIV by BlackBerry)' 국내 출시 제품 발표회에서 모델을 이 프라이브를 시연하고 있다. 프라이브는 블랙베리 고유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며 방대한 안드로이드 앱과 실제 키보드와 터치 키보드를 함께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 역시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금유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8~14

일 글로벌 주식자금은 FOMC,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의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순유출로 전환됐다. 채권자금은 북미, 서유럽 편드를 중심으로 8주만에 순유출이 이뤄졌다.

일본의 금융정책회의 역시 추가 완화와 동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대폭적인 추가 양적완화나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인

란 의견이 우세하다. 바로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21일)에 미 FOMC에서

금리정책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에 앞서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다만 BOJ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총괄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시장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과거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뉴시스

"주가변동폭 큰 종목 '작전' 가능성 높아"

금감원 "주당 가격 낮고 거래량 적은 종목 중"

갑자기 주가가 오르거나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법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 주요 조사사례를 선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조사결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시세조종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속칭 '베투기형' 시세조종이 활개를 쳤다.

전문투자자 A씨는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한 뒤 종목, 시기, 가격 등을 지정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해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모 증권회사 센터장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계좌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C씨의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법령에 가담해 10여억원을 챙겼다.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발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석 자본시장조사국장장은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한계기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모 코스피 상장회사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D씨는 자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법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박 국장은 "한계기업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추종 매수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떠안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하는 세력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블록딜은 증권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모 증권회사 직원은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 블록딜 대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는 일반투자자는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떨어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뉴시스

지자체 출연연·과기 공익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지원제도 설명회...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강화·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까지 확대된다.

사전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 및 후속 사업화연계기술개발 등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20일 대전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한다.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도입된 기술창업 유형의 하나로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기술을 갖고 있지만 창업 파트너가

없는 공공연구기관과 신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 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법률 자문 등 컨설팅,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후속연구를 위한 R&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다음해부터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공익법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 중이며 광주·전북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도 설립을 타진하고 있다.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다음달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할 예정이다. /뉴시스

금감원, 한진그룹 은행대출 현황 긴급점검

조양호 회장 책임 압박 후속조치

금융감독원이 한진그룹의 은행 대출 현황 등 재무상태 점검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에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조사 결과 한진그룹의 은행권 여신은 총 8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한진해운이 3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4조5000억원 중 4조원 가량 별로 개별 상담할 예정이다. /뉴시스

공은 항공기 구매 시 받은 담보대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들이 한진그룹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점검이 한진해운 물류사태 해소를 위한 그룹과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의 책임을 압박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석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